

여야 정면충돌에 정기국회 곳곳 파행...협치 다짐 공염불 우려

野 지역화폐법 강행...與 “현금살포법” 野 “경제 살리기” 법사위·국토위 野 독주에 파행...연금개혁특위 구성도 공전 정기국회 시작부터 파열음...“민생 패스트트랙” 약속도 흔들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협치를 하자고 다짐했던 여야가 다시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비정점 민생법안 합의 처리와 1일 여야 대표 회담으로 '민생 협치' 분위기가 오는 듯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연일 단독 처리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순 날카로운 대치 정국으로 전환하는 듯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론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반발해 왔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했다. 여당 행안위원들이 전원 ‘반대’

표를 던졌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부 결산안 부대 의견에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넣을 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부대 의견 명시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용산구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공문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파행 속에서 부대 의견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상정으로 인한 여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비판하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이 이날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틀째 불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연태영 의원의 ‘나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임 의원이 “야권의 선전 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공방이 가열되자

회의가 잠시 정회했다가 임 의원의 유감 표명 이후 회의가 이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야당 요청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당내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적격·부적격 사유를

병해 의결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취소요청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선거 농단”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

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직 의원은 애초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야당 대표도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밭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막장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이달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면서 민생 협력이 가능하느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도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하고 세대별 보험료를 단계적 인상,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을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며 특위 구성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추경호 “정치퇴행,李 사법리스크 탓...‘방탄 수렁’ 나와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의원 윤리실천법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

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식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제한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이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

판을 주문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 7건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정치 횡포”라고 규정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뿔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셨나”라고 되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도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야당발 ‘광우병·사드·세월호·후쿠시마 괴담’도 있었다며 “탄핵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

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정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법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말했다.

이어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에 대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홍명보·정몽규·배드민턴협회장 증인 채택

문체위,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안세영 논란 관련 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1일 현안 질의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문체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 감독 선임 및 파리올림픽배드민턴 금메달 리스트 안세영의 ‘작심발인’ 논란과 관련해 열리는 이번 현안 질의에 증인 27명과 참고인 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홍 감독, 정 회장, 정몽규 회장의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정세진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회의 이름이 올랐다.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 김중수 부회장, 김학균 파리올림픽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 정강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 장재근 진천선수촌 총장 등도 불러 나오게 됐고, 유인

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박문성 축구해설가와 김대업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및 안세영 소속팀인 길영아 삼성생명 배드민턴팀 감독 등이 채택됐다. /연합뉴스

“취약계층 생계급여 조기 지급”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대통령실 정세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달 생계급여는 이달 중순 전 지급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환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